

지역인력 활용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2국가산단 우수지를 활용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진행 '순항'

군산시는 군산2국가산단 우수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2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주)피앤디솔라라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11월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군산새만금컨벤션(CSC)에서 개최했으며, 올해 1월초 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20%로, 오는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주)피앤디솔라가 우수지 수면을 20년간 임차해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과 공동으로 사업관리 및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군산시는 직접 투자 없이 수면임대 방식으로 사업운영

을 하게 된다.

즉 총사업비 431억 원을 투자해 우수지 37만2,182㎡ 중 60%를 활용한 18.7MW 규모의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 7,000여 가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용량인 연간 2만4000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원유 566만 배럴 대체효과와 10년생 잣나무 160만 그루 심는 것과 맞먹는 CO2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과 함께 부력체 제조시설을 군산에 유치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부력체 조립인력 6천명, 전기·건축분야 시공인력 8천명 등 지역인력 활용과 함께 주요소재의 조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힘



사업시행자인 (주)피앤디솔라라는 올해 1월초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20%로, 오는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로 수입과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주민 건강증진 위한 인프라 확충 나서

익산시,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추진 박차



익산시 마동 테니스공원 조감도

익산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 건강증진 및 시민건강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익산시는 테니스 동호인 및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80억원 중 토지매입비로 지난해 추경예산 1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15억원을 반영했으며,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다.

테니스공원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마동 예술의전당 분관 인근에 테니스장 12면, 실내구장 2면, 다목적구장 1면 등 36,008㎡ 규모로 조성된다.

2011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된 테니스공원은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 체제 선언으로 중단되었으

나, 그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협회 관계자와 풍호 회원들의 노력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또한 익산시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공체육시설 2곳의 인조잔디 교체율 마무리 한다.

그간 공공체육시설은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바닥재를 인조잔디로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결과 어안동 중앙체육공원과 합일읍 아사달공원 인조잔디 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교체를 추진해 왔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2곳의 인조잔디는 지난해 철거를 마친 상태로 철거결과 바닥재와 배수로 정비 등 추가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었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2억 58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부터 구장 바닥 배수공사를 포함한 인조잔디 교체율 실시할 계획이다.

최양욱 복지환경국장은 "테니스공원 조성사업과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출산 · 보육 부문 공공성 강화 총력

익산시는 2018년을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보육 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성가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싱글 여성을 위한 안심 무인택배함 3,579건, 우리동네 발길안전지킴이 운영 80회, 공동육아나눔터를 1만여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무인택배함, 발길안전지킴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계속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48%)과 일·가정 양립(3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는 보육지원(47%)과 출산지원(23%)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과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기존 10개→올해 11개), 익산시민의 특화사업인 야간, 휴일시간제 보육실 지속 운영, 어린이집 숲 인증제, 어린이집 친환경 쌀과 식품지원(친환경 쌀과 식품 현재 57개소→상반기 70개소로 하반기까지 150개소 확대),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매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일문화교 운영등을 통해 보육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보석박물관-체코 패션주얼리 '핸드메이드 드림' 전시회 연다

익산시 보석박물관(관장 정원섭)은 주한체코문화원과 협업하고 지난 13일부터 4월 8일까지 체코 패션주얼리 핸드메이드 드림(Handmade Dreams) 전시회를 보석박물관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주한체코 문화원과 상호 역사·문화·예술·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시작했으며, 그 첫번째 행사로 핸드메이드 드림(Handmade Dreams) 전시회를 진행한다.

핸드메이드 드림은 체코의 패션주얼리를 알리기 위해 페트리 노비 박사(Petra Nová)가 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2016년 9월부터 해외 순회하는 전시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불가리아 소



내달 8일까지 아트갤러리

피아·세블리에보·페르니크, 그리스 테살로니키,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그리고 서울을 이어 익산은 11번째 순회도시다.

체코 패션주얼리는 17세기부터 전세계에 수출되기 시작했고 체코 북부 보헤미아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여 20세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번 주요 작품은 13개의 스탠드형 쇼케이스로 전시되며 전통 및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체코 업체 외에도 유리공예 고등학교와 기술 대학교 학생들, 마스터 오브 크리스탈 대회 수상자의 작품도 선보인다. 또한 컨템포러리 주얼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조라(Zoya), LLEV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보석대중화와 블링블링 주얼리페스티벌(4월 4일~15일) 기간과 일부 함께 진행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국인산업, 기획공연 공동추진 협약

군산시와 (주)국인산업은 13일 기획공연 공동추진 협약을 통해 '2018년 신춘음악회(Spring concert)'에서는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는 모스틀리 오케스트라의 협연과 함께 천의 목소리라 불리는 소향 최고 락밴드 부활의 레전드 보컬 정동하, JTBC 팬텀싱어의 신에스타 조민웅 뮤지컬 배우 김선영이 따뜻한 봄날 가슴 벅찬 음악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의 공연을 제공하고, 시는 예산절감, 기업은 예술문화 활동지원에 동참하며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한편 (주)국인산업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된 '2018년 신춘음악회(Spring concert)'에서는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는 모스틀리 오케스트라의 협연과 함께 천의 목소리라 불리는 소향 최고 락밴드 부활의 레전드 보컬 정동하, JTBC 팬텀싱어의 신에스타 조민웅 뮤지컬 배우 김선영이 따뜻한 봄날 가슴 벅찬 음악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춘음악회는 오는 3월 17일 오후 5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티켓은 R석 5만원 S석 4만원에 판매된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군산시가 전북도로부터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10억원) ▲장지도 관광편의시설 설치(4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5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기반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인한 군산상권 붕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장지도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고군산군도 관광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예산 확보로 장애인 복지 향상은 물론 동군산 균형발전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근기자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주요사업기관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